

『찬우물 이벤트 게시판(옹달샘)-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 그 방향은.. (go CW)』 461번

제 목 : [연대회의]8,9일 연대모임제안서

올린이:연세총여(강지현) 98/08/05 22:34 읽음: 8 관련자료 없음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전국적 흐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여성주의자들의 뭉침마당"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내는 사람들 :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받아줄 사람들 :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을 같이 하고픈 사람들, 단위들
장소 : 원광대 한의대 여휴
일시 : 8월 8일 늦은 3시에 만나서 하룻밤 지내기
회비 : 차비를 제외하고 15000원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회의는...

지난 96년 연대 사건에서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여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여, 97년 3월 9개 학교의 여성운동 단위들이 연대한 '공권력에 의
한 성폭력 대책위'가 꾸려졌고, 이러한 흐름은 97년 4월 각 학교에의 공
식적인 제안으로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를 발족시켰다.

이후 연대회의는 97년 하반기부터 성폭력 학칙의 의미에 대한 고민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가안을 만드는 작업을 계
속해 오고 있다. 98년 5월에는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 공청
회를 통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의 필요성과 활동을 알려내어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었으며,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의 여성운동단위들과 만날 수도 있었다.

성폭력 학칙 제정운동 그 깃발을 올리며...

98년 여름 방학을 계기로 연대회의는 97년부터 계속된 학칙 가안의 수정 · 검토 작업을 정리하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학칙 제정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으로 우리는 일상속에서 여성에 의해 재구성된 성에 관한 우리의 담론들을 형성하며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처벌(?)을 위한 실제적인 구축물로서의 학칙제정운동을 시작하려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국에서 함께 하고 있는 동지들과 함께 서로 힘을 주고 받으며, 전국적으로 힘이 실릴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

1. 성폭력 개념과 성폭력 학칙의 내용을 공유해 봅시다.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서 활동하면서 갖고 있는 다양한 수위의 개념들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2.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어떤 방향으로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을 해나가야 할지 얘기 해 봅시다.
3.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을 함께 풀어낼 사람들로써 어떠한 연계를 속에서 활동해 갈 수 있을지 얘기해 봅시다.

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풀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단위에서 이에 대한 내용들이 미리 논의된 상태에서 얘기가 진행된다면 얘기가 더욱 편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외에 같이 놀 수 있는 깨알같은(?)밤이 기다리겠죠.

연락처 : 장다혜 019-216-5917 /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02) 360-3548
통신 ID : NOW 연세총여

PS. 사과의 말씀

이미 구두로는 많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제안서가 늦어지게 돼서 죄송합니다. 덕분에 장소와 시간이 늦게 전달된 경우가 많을 것 같군요. 하지만 모쪼록 많은 친구들이 모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와 시간이 늦게 전달이 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고 늦게 오셔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